

비전
북

Kaywon Vision 2023

비전
북

Kaywon Vision 2023

100 Guideposts

비전
북

교육
창업·취업
산학동체
프로모션
캠퍼스

PLAY

놀이, 즐거움, 기쁨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 공자, 『논어』

Vision 2023

—

아시아 최고의
독립 예술디자인대학

계원은 짧은 역사에도 진보적인 예술디자인 교육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계원은 작은 규모에도 비대한 대학들이 닳고 싶어하는 장소 예술디자인대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원은 개교 30주년을 맞는 2023년에 ‘아시아 최고의 독립 예술디자인대학’으로 도약하고자 10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로 세운 꾀대를 향해 계원은 일로매진할 것입니다.

— 총장 권영걸

계원 비전 2023

Kaywon Vision2023

아시아 최고의 독립 예술디자인대학

Leading Art & Design School in Asia

교육

p. 9

창업·취업

p. 51

p. 93

신학동체

p. 135

프로모션

p. 177

캠퍼스

그린 | 플레이 | 스마트

Green | Play | Smart

계원성

Kaywon Identity

교육

창조 계원의 비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창조적
상호작용으로 행복에 이르는
과정이다.

창조 계원 5개년 계획은 대학 재창조 플랜이다.
계원예술대학교 공동체 구성원은 모두 생태 사상을
내면화(Green)하고, 교육과 행정에 첨단 기술을
활용(Smart)하여, 놀이와 학습이 하나 되는 새로운
'놀이공부(Play)' 방식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참교육을
실현한다.

계원은 혁신적인 독립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예술·디자인 교육을
지향한다.

혁신적이고 독립적인 영 크리에이터(Young Creators) 양성은 계원 교육의 목표이다. 철저한 현장중심 교육, 미래설계 교육, 창업·취업 특화교육 등 계원만의 진취적인 교육방법론을 개발 도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기성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장 중심과 학생 중심의
융합 교육을 실현한다.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 교육은 필수다. 제조, 콘텐츠, ICT, 서비스 등 산업 분야에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새로운 시장을 장악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래 산업을 선취할 수 있도록 계원만의 특화된 융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 현장은 하나다.
대학과 산업의 견고한 교육
공동체를 조직한다.

산·학간 위탁 교육, 계약 학과 교육, 사회 맞춤형 교육 등 계원과 산업체와의 견고한 교육공동체를 조직하여 현장 적응력이 탁월하고 실무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관련 기술을 조기에 연구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계원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꾀한다.

전공 교육은 산학동체로 완성한다.

포스트 NCS 시대에 대응하는 산학동체 전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실무, 실습 중심 핵심역량과 창업·취업 역량을 극대화한다. 현재 완성된 NCS*교육시스템을 넘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미래 산업 맞춤형 전공교육을 실시한다.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교양 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사구시
교육 과정으로 거듭난다.

관습적인 교양교육을 지양하고 미래 사회수요와
직업구조의 변화를 담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교양과정을 개발한다. 이 교양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을 통해 창업·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비교과 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증폭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교과 과정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는 학생 역량
모델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략적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을 확장하고, 학생 스스로 부족한 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숨겨진
역량을 발굴하는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창업을
주도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전공심화과정은 기존 학위 과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학
최고 실무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영역 간의 융합을
통해 운영되며, 창업에 관련된 다차원의 학습과 모의 창업
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현장과 실전에 강한 융합형 창업
인재로 육성한다.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맞춤형
교육을 연구 개발한다.

국내 시장의 수요를 개척할 로컬 디자이너 교육과 달리, 해외로 진출할 글로벌 예술·디자인 인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한다. 전공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어학 능력, 글로컬(glocal) 문화 연구, 글로벌(global) 현장학습, 현장 적응력, 전공 지식과 경험의 현지화 능력 등을 제고하여 해외 창업·취업의 기회를 늘려나간다.

100세 시대 미래 교육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평생교육학부를
개설한다.

100세 시대 성인학습자 시장의 초기 시장 진입자 (First Mover)가 되기 위해, 평생교육학부 연구위원회를 가동하여 예술·디자인 기반의 생애교육 모형을 연구 정립한다. 인구 고령화, 학령인구 절벽, 인생 2모작 시대에 대비하여 연령대별로 최적화된 예술·디자인 교육과정과 학제를 연구하여 국내 최고의 독립 예술·디자인 평생교육학부를 개설한다.

교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교수상으로 전환한다.

이제 교수의 관습적인 역할인 티칭은 코칭으로, 나아가 매칭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계원 교수는 융합형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학생의 미래 삶을 예비하는 공동설계자로서, 학생 자신이 세운 뜻대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조력자로서, 문제해결 기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로서, 학생을 미지의 세계와 연결하는 매치메이커로서의 교수상을 정립하고, 다가오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수상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계원 특유의 예술·디자인
교육 모델에 최적화된 교육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유의 교육모형은 특유의 교육행정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계원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의 전문성, 유연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계원 특유의 교육행정체계를 확립한다. 계원은 독립 크리에이터(Independent Creators)를 양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자유롭고 더욱 창의적인 계원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끼와 열정이 넘치는
예술·디자인 인재를 찾기 위한
혁신적인 입시 제도를
연구한다.

미래의 예술·디자인 인재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한 줄로
세우는 입시제도가 아닌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연구한다. 나아가 격변의 시대를 감당할 도전정신,
리더십, 창조의 모티베이션이 강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혁신적, 다면적, 심층적인 평가방법을 연구한다.

창업과 산학동체를 실현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학사 제도를
확립한다.

계원은 철저한 창업교육으로 시장에 능통한 독립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산학동체 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인재를 키운다. 이를 위해 시장과 현장을 꿰뚫는 미래지향적인 실전 인력들을 영입하여 교단에 배치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개발 운영하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학사체계를 마련한다.

스스로 자신의
창의 역량을 탐구하고
'놀이공부(Play)'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계원의 슬로건은 놀음, 즐길, 기쁨의 Play, 일과 놀이, 학습과 유희가 공존하는 Play다. 그것은 모두 자발성에 기초한 것으로, 놀듯이 일하고, 유희하듯 공부하는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계원의 교육환경은 Play를 실현하기 위해 탈(脫) 교과, 탈 강의실, 탈 캠퍼스까지 고려하는 진보적인 교육환경의 도입을 모색한다.

계원교육시스템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교수, 공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계원스마트교육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 시설,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시스템으로 평가 관리한다. 평가 결과는 즉각적으로 피드백되어 교육시스템을 진화시키며 K-CQI와 교육서비스를 통해 계원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킨다.

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의 예술·디자인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4차산업혁명과 미래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의 학사제도와 학사구조를 분석 평가하고, 계원이 처한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계원은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혁신을 체질화하고 산학동체의 상생 관계를 통해 미래 시장의 변화에 대비한다.

국내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학제적 교육 경험과
실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학제와 전공을 넘어 국내 대학들의 관련 학부, 학과, 전공들과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계원은 예술·디자인을 에워싸고 있는 학문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미래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예술·디자인 실험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예술·디자인 교육의 가능성을 넓힌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대학 선정과 교류를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해외 교류대학 선정의 제1기준은 '실효성'이다. 방만한 교류협약의 관행을 지양하고 지구촌에서 교육이념, 학사구조, 교수 학생 프로그램의 성향이 유사한 대학을 찾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시행한다. 교류는 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대학들만으로 국한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교류, 교수교류, 공동학위제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등 다차원의 교류를 추진한다.

인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종 영역과의 융합 교육과정을 구축한다.

국내외 대학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 공동 정책 연구, 공동 전시, 창업·창직 연구 등의 교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예술·디자인을 넘어 인문학, 공학, 농학, 의학, 경영학 등 이종 학문영역과의 융합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교차 영역적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문제해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창업·취업

계원의 DNA를 창업 친화적으로 전환한다.

급변하는 현시대의 상황은 취업에서 창업으로 교육현장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계원은 창업특성화전공 개설, 창업교육과정 확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창업역량 평가를 반영한 입시제도 개선, 창업 연계 대내외 활동 활성화 등 모든 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바꾼다.

창업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바른 문제의식과 실행력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인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마인드 특강 및 창업캠프,
기업가정신교육, 스타트업 집중교육주간 등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화된 산업융합형 창업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산업융합형 창업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창업아이템발굴, 시제품제작, 모의창업, 창업인턴제, 창업레지던트제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 교과 과정을
확대 운영하며 비정규 창업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창업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학과 간 융합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초 및 실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가
및 창업자문위원회 멘토링, 실전형 창업특강, 모의창업
워크숍, 창업캠프 등을 통해 창업현장을 경험하고
훈련한다.

예술·디자인 기반
창업 동아리를 통해 자기주도적
창업을 활성화한다.

학과기반, 융합기반, 외부기관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동아리를 구성하여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창업을 유도한다. 창업 장학금,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창업 경진대회 및 다양한 창업캠프 참여를 통해 자기주도적 창업을 활성화한다.

계원스타트업 스타기업을 육성한다.

계원 창업 프로세스와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혁신하고 계원을 빛낼 수 있는 유망한 예비창업가 및 스타트업팀을 발굴한다. 공간 및 투자유치, 협업,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계원스타트업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창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비 창업가
육성 및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창업아이템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시장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및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업경쟁력을 강화한다.

계원 특유의 예술·디자인 창업 모델을 만든다.

1인 창업, 팀 창업, 협동조합형 창업 등의 모형을 개발한다. 디자인기반 창업교육 및 교재개발, 특화된 창업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계원 특유의 예술·디자인 창업모델을 만든다. 나아가 평생직업교육 차원의 일반인 대상 창업과정 개설로 확대한다.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지식재산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디자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학생 및 산업체에게 디자인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디자인기술(DT)이전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대내외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원스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을 확대한다.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행사를 제공하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각종 지원기관의 협업을
지원하며 메이커스 파라다이스, 스타트업 파라다이스,
코워킹 파라다이스*를 통해 제조, 콘텐츠, 서비스 기반 등
모든 영역의 창업을 지원한다.

취업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취업동기를 향상시키는 집중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취업태도 및 인성특별프로그램, 진로탐색, 미래비전 특강을 개설하여 취업마인드를 강화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진로 및 취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취업 교과 과정을
확대 운영하며 비정규 취업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직업기초능력 등 취업 관련 정규교과과정을 운영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특강, 취업캠프, 멘토링,
구직역량, 포트폴리오 역량 강화 등 비정규 교육을
확대하여 취업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마스터 클래스
집중 교육을 통해 해외 취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역량 자격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세계시민의식, 언어, 문화, 에티켓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시킨다. 해외 네트워크 및 거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통해 해외취업을
확대한다.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학생의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취업지원에서 경력개발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학생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의 진로탐색 및 역량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은 신입생 단계부터 장래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직무에 필요한 기초 및 직무역량을 단계별로 쌓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경력을 개발한다.

국내외 취업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우수기업 발굴 및 연계, 기업탐방, 기업설명회, 산업체 및 동문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확대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취업 우선 대상국을 선정하여, 대학, 기관, 산업체를 아우르는 예술·디자인 전문 취업 광대역 네트워크로 취업기회를 높인다.

산업체 밀착 취업 활동을 확대한다.

국내외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확대하여 산업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산업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국내외 취업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추천하고 학과별, 직무별, 산업체별 기업설명회와 취업박람회 등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긴밀하고 다양한 취업활동을 한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기업과 대학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실습, 실무 중심 교육으로 산업체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로 진출시킨다.

돌봄(Care)이 있는 대학 생활을 제공한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케어를 기본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서비스, 체계적인 의료보건 지원,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전담 상담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의 만족도를 높인다. 계원 구성원 모두는 나, 너,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마인드를 공유하고 실천한다.

나눔(Share)이 있는 대학 생활을 경험하게 한다.

공존과 나눔의 정신을 내면화하고 계원EXPO, 아이소리축제, 조형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행사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천한다.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홈커밍데이 정례화를 통해 재학생, 교수, 졸업동문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놀이(Play)이 넘치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게 한다.

계원 Play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고 공유하여, 캠퍼스에 놀음, 즐길, 기쁨이 넘치게 한다. 학생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Play가 넘치는 축제, 전시, 입학식, 졸업식 문화를 조성한다. 계원의 학생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행복과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활을 즐긴다.

산학동체

이제는 산학동체다.

떨어져서 필요를 상호교환하고 조력하던 종전의 산학협력 형태로는 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었고, 인력 미스매치를 극복하지 못했다. 계원은 이제부터 기업들과 일심동체를 이뤄 4차산업혁명이라는 격변의 물결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부문별 핵심 디자인 인력을 양성한다. 남다른 창조와 혁신의 마인드로 디자인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진정한 산학동체(産學同體)를 구현한다.

기업이 계원으로 들어온다.

기업의 핵심개발부서와 디자인연구소가 파라다이스홀에 입주하여 산학동체 교육을 수행한다.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에 교수와 학생이 참여한다. 기업과 함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도 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OJT(On the Job Training) 계원예술디자인교육을 완성한다.

계원이 기업으로 간다.

계원은 산과 학이 떨어져서 필요를 교환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계원의 학과들과 궁합이 잘 맞는 기업을 찾아내고, 그 산업현장으로 교수와 학생이 들어간다.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은 현장적응력을 높이며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기회가 되고, 기업은 준비된 우수디자인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산업 수요 기반 산학동체 교육을 지원한다.

4차산업혁명이 몰고 올 격변의 힘, 속도, 방향에 맞춘 미래지향적 예술·디자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산학동체 가족회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삶과 시대의 흐름을 앞서 읽고, 신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전문가 Pool을 운영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 효율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한다.

융합에 기초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한다.

학과와 학과 간, 대학과 대학간, 대학과 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융합 아이디어 공유모임’, ‘해커톤(Hackathon)* 프로젝트’ 등 학생, 교수, 기업이 함께 과제를 탐구하고 혁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융합의 장을 제공한다.

해커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등이 팀을 꾸려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 기획, 프로토타이핑 등의 과정을 통해 시제품 단계의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메이커스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제품 제작 환경을 만들어 예비창업자들의 창작 놀이터로 제공한다. 3D 프린팅, 인쇄출판장비, 셀프프로덕션스튜디오 등 최적의 시제품 제작 및 생산 환경을 만들고 전문 테크니션이 애로기술을 지원한다. 디자인, 제조, 판매, 유통, 홍보, 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메이커스를 돕는다.

스타트업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계원은 '영 크리에이터(Young Creators)'를 배출하는 창업 주도의 대학이다. 디자인으로 세상을 혁신할 창업아이템을 교수와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발굴한다. 창업팀 꾸리기부터 창업기업으로 정착하기까지 기술거래사, 변리사, 세무사, 청년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코칭팀이 밀착 지원한다. 계원은 제조, 콘텐츠, ICT 등 미래산업기반 청년창업가들의 낙원이다.

코워킹 파라다이스를 실현한다.

대학마다 산·학·관 협력을 강조하지만, 이 세 주체가 서로의 진정한 필요성은 물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계원에서는 산·학·관이 경계 없이 하나가 된다. 파라다이스홀에 혁신기업들이 들어오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지원하는 협업 낙원을 만든다.

계원아트옥션(Kaywon Art Auction)을 운영한다.

매년 1000여 건의 교육결과물과 동문작가 및 교수들의 작품을 선별, 포트폴리오 DB를 구축한다. 계원아트옥션을 운영해 작품 활동에 기반 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예술·디자인 분야의 우수한 청년작가들을 양성한다.

계원예술공학연구소를 활성화한다.

계원예술공학연구소는 교수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다. 산·학·관 협력연구 과제를 교수 간 협업으로 발굴하고, 사업기획, 사업화, 지식재산권, 디자인기술이전, 성과관리, 확산 등을 협력해 진행한다. 예술·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우수 연구소로서 위상을 높여나간다.

견실한 산학협력단 운영으로
산학역량을 강화한다.

산학협력지원사업과 산학프로젝트 수주, 지식재산기반
기술이전, 학교기업운영 등 수익사업을 확대해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교내정책연구비 지원과 우수교수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지표 관리와 산학협력단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기업디자인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계원과 기업 간 소통 가능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클리닉제도’와 ‘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캠퍼스퍼실리티활용매뉴얼’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계원의 지식재산과 첨단장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계원형 1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계원이 운영하는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디자인 특성화 창업지원기관으로 ‘나홀로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한다. PBL* 교육으로 훈련된 학생들이 1인 창업자들의 지원군이 된다. 액셀러레이터들이 피칭컨설팅을 진행하고, 전문기관과 협업해 크라우드펀딩레이스를 진행한다. 국내 최고의 디자인 전문 ‘1인기업지원센터’로 도약한다.

PBL(Problem-Based Learning) | 문제중심학습. 종전의 강의법을 지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디자인지식재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에 있다. 계원은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재산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미래 산업자원을 축적한다. ‘디자인지식재산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자인 가치창출로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사업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학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수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산학협력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현장실습과 OJT 교육을 통해 창업·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창업, 학생창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습지원형 학교기업을 확대한다. 산학동체 교육, 수익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학교기업지원센터로 도약한다.

계원은 지역사회, 지역산업과
하나가 된다.

계원은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연계하여 산업체
위탁교육, 사회맞춤형교육, 계약학과제도를 운영하고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산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시장 중심의 혁신과 산학동체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디자인 익스포트 클럽 (Design Export Club)을 운영한다.

제품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저급한 디자인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계원의 디자인 지원으로 하청 생산을 주로 하는 OEM 기업이 자사 주도적 디자인개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대응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원디자인 공동브랜드를 개발 운용한다.

계원프렌즈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가족회사가 이를 공유하여 코워킹하고,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등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기반을 만든다. 계원인의 창업제품을 가족회사와 연계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패밀리 창업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개발한다.

부모의 경험 및 자본력과 자녀의 창작 및 혁신 능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세대융합형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패밀리창업모델로 프랜차이즈 사업화한다. 퇴직한 부모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같은 공간에서 자녀는 창의 혁신 아이템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수익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족창업을 지원한다.

계원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간다.

이제 계원은 세계화다. 글로벌 창업·창직의 시대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창업 및 현장실습을 위한 거점센터를 구축한다. 글로벌 시장을 실사구시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파악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역량을 함양시킨다. 직업의 세계에 격변을 몰고 올 4차산업혁명에 당당히 대응할 새로운 직군을 만들고 창업해 세계로 나아간다.

프로모션

계원프로모션은 ‘계원경험’이다.

단순한 사실을 광고하는 시대는 지났다. 광고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계원이라는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한다. 계원프로모션은 계원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기획되고, 프로젝트는 프로모션을 통해 활성화된다.

계원성을 전방위로 알리고
비상시킨다.

개교 이래 계원은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예술·디자인의
전위대였다. 사회에 영감을 주고, 예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제 계원은 궁극의
가치를 향해 캠퍼스를 넘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과
소통하는 총체적 디자인서비스로 나아간다.

탐구와 실험의 놀이터인
계원 GPS를 사회에 제시한다.

즐거운 순간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며, 떠오르는 영감은
다시 창조정신과 열정을 자극한다. 계원의 창작·놀이
방식은 한계에 도달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원GPS(Green·Play·Smart)를 제시한다.

계원만의 신화와 스토리를 창조한다.

계원의 상징은 계수나무다. 계수나무와 상승효과를 이룬만한 동물 및 사물을 다차원적으로 연구·개발한다. 계원의 상징물은 신화와 스토리가 되어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며, 대학 브랜딩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계원인 모두가 ‘이야기꾼’이자 ‘이야기디자이너’이다.

계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재미있다. 그것은 계원인에 의해 이어지고 보태지며, 계원프렌즈의 삶에 투영되어 전해진다. 계원인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storydesigner)이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storyteller)이다. 계담화(桂談話)*를 통해 계원을 홍보한다.

계담화(桂談話) | 계원에 닿아 있는 온갖 스토리와 은어와 뒷담화들.

‘계원상회’는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팅 쇼핑몰이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체험의
놀이터이다.

‘계원상회’는 계원의 기발한 상상력과 기술을 융합한
창작물을 판매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쇼핑몰이다.
지역주민과 기업들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아트상품, 계원이 자급자족한 유기농
채소, 건강식품 등 라이프스타일 편집 마켓*을 경험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편집 마켓 |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아이템 구색을 갖춰 놓아 토털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매장을 말한다.

‘계원상회’는 계원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계원상회는 계원이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오프라인의 행복마켓이다. 계원의 이야기는 형태가 있는 사물로 나타나며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 사물, 장소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는 기발하고 유용한 상품이 되어 계원상회에 채워진다.

계원의 유별난 손재주꾼들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다.

특별히 기울어진 조형감각과 재능(Tilted Talent)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시대를 이끌 최고의 예술 디자이너로 양성한다. 이들은 계원의 공작청년(工作靑年)으로 일궈어진다. 그들이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을 계원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적극 홍보한다.

‘계원선수’를 찾아
스타&스토리 브랜딩을
추진한다.

계원의 동문과 교수 등 계원셀럽(Kaywon Celeb)을 발굴하고 스타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프로모션에 나선다. OB와 YB의 팀플레이는 계원의 창의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들의 활동이 곧 계원의 스토리다.

Cafe PLAY를 ‘맛과 멋’으로 명소화한다.

계원상회에 속한 Cafe PLAY는 평생교육원 호텔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한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계원푸드’를 개발하여 비즈니스화하고 계원인과 지역주민, 나아가 계원프렌즈*에게 건강하고 매력적인 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원프렌즈(Kaywon Friends) | 계원을 경험하고 교류 및 협력하는 개인, 기업, 기관, 지자체를 뜻함.

계원은 ‘계원프렌즈’와 함께
프로모션하고, 창업교육과
산학동체교육을 활성화한다.

계원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계원프렌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계원프렌즈’는 개인, 기업, 지자체, 정부 등 계원과 소통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동업자이자 소비자이며 동지가 된다. 계원은 ‘계원프렌즈’와 산학동체가 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직업을 발굴한다.

‘계원프렌즈’로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종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계원프렌즈는 계원을 경험한 사람과 집단이다.
계원프렌즈는 모두 계원프렌즈 카드를 소지하며
견고하고 넓은 협력망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직업, 연령, 지역,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실험하고 촉진시켜, 미래직업을 제시하고
우리의 출구를 스스로 만든다.

계원사용법은 사용자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공유된다.

계원의 사용자는 계원인과 계원프렌즈다. 계원의 캠퍼스는 숲의 에너지와 창작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프로모션의 보물창고이다. 계원사용자는 계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간과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은 다양하다. 계원사용자는 캠퍼스에서 교감하고 SNS를 통해 계원경험을 외계와 공유한다.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으로 출구를 만든다.

Play 계원, Player 계원인은 경쟁하지 않고 협력한다.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오만은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다.
창업협동조합연합 계원상회를 통해 협력의 방법과
공유가치를 배우고 익혀 시장에 진출한다.

계원상회에서 인큐베이팅하고,
계원EXPO로
시장에 진입한다.

계원상회는 기발하고 쓸모있는 상품과, 호텔학교에서 운영하는 Cafe PLAY의 건강하고 맛있는 계원푸드가 사용자와 만나는 기회를 만든다. 계원인과 계원프렌즈가 주도하는 계원EXPO는 대규모 예술·디자인·공예 박람회로서, 청년일자리와 미래시장을 창출한다.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위해
‘계원아트옥션’을 시작한다.

상위 1%를 위한 예술거래는 계원의 역할이 아니다.
문화예술 향유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계원아트옥션은
99%의 예술 대중화에 도전한다. 미술, 공예, 디자인,
음악, 음식 등 계원 창작물은 계원아트옥션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 예술디자인 시장을 선도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 예술·디자인대학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앞장선다.

세계는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다. 계원은 지역의 공공예술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고, 도시재생에 최적화된 예술디자인 역량을 이미 입증했다. 이제 계원은 도시재생의 탁월한 역량과 신기술을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일으키고 시장을 확장하여 지역사회를 넘어 국민의 삶에 기여한다.

100세 시대를 디자인하는
계원평생교육학부를 세상에
알린다.

계원은 100세 시대 예술·디자인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평생교육학부를 설립한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세대에게 예술·디자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계원동문과 계원프렌즈는 평생교육을 통해 계원인이 된다.

계원의 호텔학교는
호스피탈리티디자인 시장을
개척한다.

계원은 선도적인 예술디자인교육과정과 파라다이스
호텔의 전문성을 결합한 ‘호스피탈리티디자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 특화된
인력을 양성 공급한다. 계원상회를 통해 호스피탈리티
디자인 및 호텔용품 시장을 계원스타일로 선도한다.

계원의 사계가 주는
건강한 에너지와
예술적 창작력으로 계원다음의
식문화가 탄생한다.

계원은 4계와 24절기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식탁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계원인은 도시농부이자 요리사이고, 계원스타일의 식탁을 디자인하는 창작자이다. Cafe PLAY가 만들어 낸 ‘텃밭에서 식탁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나누고, 계원다운 식문화를 창조한다. 이것은 계원만의 라이프스타일이자, 홍보 프로모션의 원천이다.

캠퍼스

계원은 그린이다.

계원의 미래는 그린이다. 계원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며 환경사랑을 실천한다. 계원 캠퍼스는 구성원들이 환경친화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모두 생태주의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장이다.

계원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캠퍼스를 조성한다.

계원은 지구를 살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에너지절약 체계를 구축한다. 태양광시스템, 지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월등한 활용역량을 보유한 에너지 자립 캠퍼스를 조성한다.

계원은 저탄소 그린 & 클린 캠퍼스 관리방안을 실천한다.

온실가스 감소는 계원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노력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계원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청정한 계원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예측 및 탄소배출 관리방안을 수립 실천하여, 저탄소
청정 캠퍼스를 만든다.

에너지효율인증을 통해
계원의 모든 물적 자원을
관리한다.

그린캠퍼스 구축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다. 대학 내의 모든 건축, 설비, 교구 등을 에너지 고효율 등급의 자원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여,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캠퍼스로 만든다.

계원은 버려지는 자원이 없는
쓰레기 제로 캠퍼스에
도전한다.

캠퍼스의 쓰레기는 자원이다. 친환경 미래를 준비하는 계원의 캠퍼스는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며 고품폐기물 저감을 위해 리사이클링(Recycling)을 통한 지속가능 디자인의 방안을 모색하고, 업사이클링(Upcycling) 디자인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을 기획하고 실천한다.

계원은 그린캠퍼스 성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

계원은 그린캠퍼스 안에서 실험되는 창의적인
그린디자인 아이디어와 실천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그린캠퍼스 성과는 캠퍼스를 넘고 지역사회도
넘어 그린시티로 적용 확장된다.

‘계원캠퍼스환경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계원인 모두가
공유한다.

환경은 특정인만의 소유물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는
자산이므로, 환경보호는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자
의무이다. 계원인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계원캠퍼스환경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계원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발생시킨 환경오염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사명과 의식을 공유한다.

계원은 스마트캠퍼스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캠퍼스를 넘어 해외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학습과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 학습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또한 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함께 배우고, 학습하고, 소통하는, 더욱 더 진화된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캠퍼스 전략을 적용한다.

계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캠퍼스를
구축한다.

계원이 구축하는 캠퍼스는 계원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파라다이스홀의 Cafe PLAY,
계원예술대학교미술관(KUMA)*의 예술 작품,
우경아트홀의 예술 공연, 도서관의 지식 정보 등
대학시설의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캠퍼스로 나아간다.

계원의 캠퍼스는
문화예술축제를 통해서
캠퍼스 밖의 세상과
하나가 된다.

축제는 연결고리다. 인근 지역사회를 예술사회화 하기 위하여, 캠퍼스에서 예술을 매개로 지역민을 계원프렌즈화 한다. 계원의 캠퍼스는 계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도시로 동심원을 그리듯 하나가 되고 링크된다. 그리하여 계원 Play가 시민 Play가 되고 나아가 공유 Play가 되는 문화예술축제의 마당을 제공한다.

계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팜 가든을 조성한다.

모락산, 캠퍼스마당, 건물옥상 등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캠퍼스의 공간자원과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GPS*형 통합 비즈니스 팜 가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캠퍼스 안전 및 보안체계를 만든다.

계원 캠퍼스에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재해 발생 등 유사시 응급 대응 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첨단 방법 보안시설을 확충하여 범죄 없는 캠퍼스를 실현한다. 무질서한 유인물의 통제와 인터넷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체계를 정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든다.

캠퍼스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계원캠퍼스는 모락산의 일부이며, 모락산은 계원그린캠퍼스의 연장이다. 계원 캠퍼스에는 사람길, 물길, 바람길이 있고 그 길들은 모락산과 인근 도시로 연결되는 하나의 경관 축(軸)을 이룬다. 계원은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산과 물, 숲과 건물, 캠퍼스의 낮과 밤, 캠퍼스와 주변 커뮤니티 등의 경관적 질(質)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

캠퍼스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종합조경계획을 통해 캠퍼스를 아름답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캠퍼스의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도록 식재를 설계하고, 계원을 상징하는 계수나무 숲을 조성한다. 건축물은 모락산의 능선에 순응하고, 수목은 건축물에 조화를 이루며, 조형물과 사이트퍼니처의 설계는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계원은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계원인과 캠퍼스의 물적 환경이 하나되는 살아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친수공간이 있는 캠퍼스를 조성한다.

사람들은 물에 반응한다. 계원 캠퍼스에는 모락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길이 있다. 이 친환경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캠퍼스에 생기를 불어넣고, 예술창작의 영감을 자극할 조형적이고 독창적인 수(水)공간을 조성하며, 다양한 친수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캠퍼스로 거듭난다.

캠퍼스 보행 및 차량 순환체계를 재구축한다.

계원 캠퍼스의 모든 길은 안전하고 친절하다. 사람길은 모락산의 산책로와 연결되어,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이 완성되고 사색의 길이 된다. 찾길과 교차하는 지점에는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캠퍼스 내에서 동(棟)간 이동은 최대한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찾길은 안전하게 교차할 수 있도록 협로(狹路)를 확장하고, 활용빈도가 적은 후문을 적극 개방하여 캠퍼스 순환체계를 개선한다.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조건을 제공한다.

캠퍼스는 길(Path)과 결절점(Node)으로 이루어진다. 길은 사람과 차량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시각정보를 필요로 하고, 결절점은 즐겁게 머무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행태장치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원인이 머무르는 공간에 적용될 시각정보와 행태장치물은 모두 GPS의 이념에 맞추어 설계 적용된다.

계원만의 체계적인 시각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계원의 시각정보시스템은 직관적 시스템, 계원다운 창의적인 시스템을 지향한다. 목적지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웨이 파인딩(Way Finding)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해 계원캠퍼스 정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 니즈 기반 시각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친환경 스마트 기숙형 캠퍼스를 조성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외국인 학생 및 원거리 우수학생, 산학 협력사 멘토 등을 위한 미래형 레지던스를 확보한다. 예술·디자인 창작을 위한 24시간 작업환경이 제공되며, 평생교육시설, 식음서비스 및 헬스케어 시설 등을 갖춘 GPS 기반의 스마트 기숙형 캠퍼스를 조성한다.

지속가능한 캠퍼스 시스템을 운용한다.

계원은 인적 물적 자원과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지향한다. 계원인은 그린 교육과 체험을 통하여 그린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계원의 모든 자원은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에너지 선순환체계를 갖춘다. 계원은 '계원환경윤리강령'을 지키고 계원 GPS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캠퍼스로 나아간다.

교육

- 1 창조 계원의 비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창조적 상호작용으로 행복에 이르는 과정이다. [p. 10]
- 2 계원은 혁신적인 독립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예술·디자인 교육을 지향한다. [12]
- 3 기성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장 중심과 학생 중심의 융합 교육을 실현한다. [14]
- 4 교육과 현장은 하나다. 대학과 산업의 견고한 교육 공동체를 조직한다. [16]
- 5 전공 교육은 산학동체로 완성한다. [18]
- 6 교양 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사구시 교육 과정으로 거듭난다. [20]
- 7 비교과 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증폭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22]
- 8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창업을 주도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24]
- 9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맞춤형 교육을 연구 개발한다. [26]
- 10 100세 시대 미래 교육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평생교육학부를 개설한다. [28]
- 11 교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교수상으로 전환한다. [30]
- 12 계원 특유의 예술·디자인 교육 모델에 최적화된 교육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32]
- 13 기와 열정이 넘치는 예술·디자인 인재를 찾기 위한 혁신적인 입시 제도를 연구한다. [34]
- 14 창업과 산학동체를 실현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학사 제도를 확립한다. [36]
- 15 스스로 자신의 창의 역량을 탐구하고 ‘놀음공부(Play)’를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38]
- 16 계원교육시스템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40]
- 17 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의 예술·디자인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42]
- 18 국내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학제적 교육 경험과 실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44]
- 19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대학 선정과 교류를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46]
- 20 인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종 영역과의 융합 교육과정을 구축한다. [48]

창업·취업

- 21 계원의 DNA를 창업 친화적으로 전환한다. [52]
- 22 창업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4]
- 23 특화된 산업융합형 창업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56]
- 24 창업 교과 과정을 확대 운영하며 비정규 창업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58]
- 25 예술·디자인 기반 창업 동아리를 통해 자기주도적 창업을 활성화한다. [60]
- 26 계원스타트업 스타기업을 육성한다. [62]
- 27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64]
- 28 계원 특유의 예술·디자인 창업 모델을 만든다. [66]
- 29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지식재산지원센터’를 구축한다. [68]
- 30 원스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70]
- 31 취업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72]
- 32 취업 교과 과정을 확대 운영하며 비정규 취업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74]
- 33 글로벌 마스터 클래스 집중 교육을 통해 해외 취업을 확대한다. [76]
- 34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학생의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78]
- 35 국내외 취업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80]
- 36 산업체 밀착 취업 활동을 확대한다. [82]
- 37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84]
- 38 돌봄(Care)이 있는 대학 생활을 제공한다. [86]
- 39 나눔(Share)이 있는 대학 생활을 경험하게 한다. [88]
- 40 놀음(Play)이 넘치는 대학 생활을 만끽하게 한다. [90]

산학동체

- 41 이제는 산학동체다. [94]
- 42 기업이 계원으로 들어온다. [96]
- 43 계원이 기업으로 간다. [98]
- 44 글로벌 산업 수요 기반 산학동체 교육을 지원한다. [100]
- 45 융합에 기초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한다. [102]
- 46 메이커스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104]
- 47 스타트업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106]
- 48 코워킹 파라다이스를 실현한다. [108]
- 49 계원아트옥션(Kaywon Art Auction)을 운영한다. [110]
- 50 계원예술공학연구소를 활성화한다. [112]
- 51 견실한 산학협력단 운영으로 산학역량을 강화한다. [114]
- 52 기업디자인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116]
- 53 계원형 1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18]
- 54 ‘디자인지식재산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20]
- 55 학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22]
- 56 계원은 지역사회, 지역산업과 하나가 된다. [124]
- 57 디자인 익스포트 클럽(Design Export Club)을 운영한다. [126]
- 58 계원디자인 공동브랜드를 개발 운용한다. [128]
- 59 패밀리 창업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개발한다. [130]
- 60 계원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간다. [132]

프로모션

- 61 계원프로모션은 ‘계원경험’이다. [136]
- 62 계원성을 전방위로 알리고 비상시킨다. [138]
- 63 탐구와 실험의 놀이터인 계원 GPS를 사회에 제시한다. [140]
- 64 계원만의 신화와 스토리를 창조한다. [142]
- 65 계원인 모두가 ‘이야기꾼’이자 ‘이야기디자이너’이다. [144]
- 66 ‘계원상회’는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팅 쇼핑몰이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체험의 놀이터이다. [146]
- 67 ‘계원상회’는 계원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148]
- 68 계원의 유별난 손재주꾼들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다. [150]
- 69 ‘계원선수’를 찾아 스타&스토리 브랜딩을 추진한다. [152]
- 70 Cafe PLAY를 ‘맛과 멋’으로 명소화한다. [154]
- 71 계원은 ‘계원프렌즈’와 함께 프로모션하고, 창업교육과 산학동체교육을 활성화한다. [156]
- 72 ‘계원프렌즈’로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중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158]
- 73 계원사용법은 사용자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공유된다. [160]
- 74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으로 출구를 만든다. [162]
- 75 계원상회에서 인큐베이팅하고, 계원EXPO로 시장에 진입한다. [164]
- 76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위해 ‘계원아트옥션’을 시작한다. [166]
- 77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 예술·디자인대학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앞장선다. [168]
- 78 100세 시대를 디자인하는 계원평생교육학부를 세상에 알린다. [170]
- 79 계원의 호텔학교는 호스피털리티디자인 시장을 개척한다. [172]
- 80 계원의 사계가 주는 건강한 에너지와 예술적 창작력으로 계원다움의 식문화가 탄생한다. [174]

캠퍼스

- 81 계원은 그린이다. [178]
- 82 계원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 캠퍼스를 조성한다. [180]
- 83 계원은 저탄소 그린 & 클린 캠퍼스 관리방안을 실천한다. [182]
- 84 에너지효율인증을 통해 계원의 모든 물적 자원을 관리한다. [184]
- 85 계원은 버려지는 자원이 없는 쓰레기 제로 캠퍼스에 도전한다. [186]
- 86 계원은 그린캠퍼스 성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 [188]
- 87 ‘계원캠퍼스환경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계원인 모두가 공유한다. [190]
- 88 계원은 스마트캠퍼스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192]
- 89 계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캠퍼스를 구축한다. [194]
- 90 문화예술축제를 통해서 캠퍼스 밖의 세상과 하나가 된다. [196]
- 91 계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팜 가든을 조성한다. [198]
- 92 캠퍼스 안전 및 보안체계를 만든다. [200]
- 93 캠퍼스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02]
- 94 캠퍼스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04]
- 95 친수공간이 있는 캠퍼스를 조성한다. [206]
- 96 캠퍼스 보행 및 차량 순환체계를 재구축한다. [208]
- 97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조건을 제공한다. [210]
- 98 계원만의 체계적인 시각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212]
- 99 친환경 스마트 기숙형 캠프렉스를 조성한다. [214]
- 100 지속가능한 캠퍼스 시스템을 운용한다. [216]

비전북 Kaywon Vision 2023

편집위원

교육 정명오, 오윤석, 박진현, 이충호
창업·취업 서정국, 김재호, 이순행, 송철용
산학동체 안수연, 김형로, 천상현, 안영준
프로모션 최정심, 김남형, 오형근, 백윤구
캠퍼스 김정근, 전영대, 박찬준, 김용주, 최성두

총괄 권영걸

기획 최정심

진행 김문정, 이원지

발행인 권영걸

발행일 2017년 10월 1일

디자인 최슬기, 인진성

인쇄·제작 으뜸 프로세스

계원예술대학교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66

www.kaywon.ac.kr

이 책의 판권은 계원예술대학교 계원 비전 2023 편집위원회에 있습니다.

위 기관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